【P2-9】

폐경 전후 여성들의 Homocystein 함량과 영양상태와의 관계

김순경, 이은주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응용과학부 식품영양전공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ma Homocystein Concentration and Nutritional Status in Pre and Postmenopausal Women.

Soon Kyung Kim, Eun Joo Lee
Dept.of Food Sciences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우리나라 폐경 전후 중년여성의 인구는 전체 여성 인구의 22%를 상회하며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로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은 악성신생물이지만, 심장,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성 질환 등의 순위를 합치면 순환기계질환이 1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폐경이후 중년 여성들에게 심혈관계 유병율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심각해지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높힌다면, 여성의 일생 기간 중 1/3 이상을 차지하는 폐경 이후의 여생을 더욱 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Homocystein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로 부각되면서 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Homocystein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경을 전후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경을 전후한 45~59세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영양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9.6±4.0세였으며, 폐경전이 15명, 폐경된 대상자가 25명 이었다. 전체대상자의 평균 혈장 Homocystein 함량은 11.03±2.02 μmol/ℓ 이었으며(범위 6.52~15.58 μmol/ℓ) 12.0 μmol/ℓ 이상을 나타낸 대상자는 13명이었다(32.5%). 폐경 전후 Homocystein 함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폐경후 대상자들의 결과가 폐경전 대상자들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영양소섭취 상태 조사는 5회에 걸쳐 24시간 회상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에너지섭취량은(1533.0±284.5 Kcal)은 권장량의 76% 수준이었고, 단백질 섭취량(57.7±14.0 g)은 권장량의 77% 였다. 비타민 B6와 Folic acid 섭취량은 각각 1.79±0.46 mg, 263.72±93.02 ㎍으로 권장량의 78.4%, 150.7% 로 나타났다. MAR은 0.87로서 전반적인 식사의 질은 양호한 편이었다. 폐경 전후에 따른 영양소섭취상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폐경후 대상자가 폐경전 대상자들에 비해 영양소섭취량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비타민B6에 있어서는 폐경후 여성들의 섭취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들에서 Homocystein 함량과 영양인자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폐경후에는 폐경전에 비해, Homocystein 함량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비타민B6나 Folic acid등의 비타민 섭취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방법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